



# 안전소홀·규정 미비가 부른 人災에 지하 용접작업자 등 14명 사상자 내



## LP가스·산소 공급 호스 충격 막는 철재 덮개 없어

1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어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가스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638-14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 내 4공구 공사 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5·26면>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서모(52)씨, 김모(50)씨, 정모(60)씨, 윤모(62)씨 등 근로자 4명이 숨졌으며 심모(51·중국인)씨 등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 4곳으로 나눠 옮겨졌다. 이들은 이날 사고현장에서 용단

작업(공기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하 15m 깊이의 작업현장에 들어갔다)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지상에는 지하 15m 깊이의 작업현장으로 LP가스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고무호스가 이어져 있었지만 이들 호스는 철재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채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

해당 공구 시행사 관계자는 “지하 작업현장에 용단작업을 마치면 매일 고무호스를 수거해 폐기한 뒤 다음 날 새로 호스를 설치해 사용했으며 별도의 호스덮개를 설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와 234조에는 사업주가 인화성 가스와 산소 등을 사용해 금속 용접·용단이나 가열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가스누출 및 방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규정은 정해져 있으나 어떻게 고무호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결국 인명사고가 재발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대·전승표·조한재·신기호 기자 pid@khihoilbo.co.kr



지난달 31일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열린 '제11기 인천대 남북아카데미 종강특강 및 수료식'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대 남북경협아카데미 제공>

## 인천대 남북경협 아카데미 11기 수료

### 개설 이후 500명 배출 인천 대표적 CEO강좌

'제11기 인천대학교 남북경협아카데미 종강 특강 및 수료식'이 지난달 31일 인천대 미래관에서 열렸다. 이 아카데미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전진기지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인천 시민의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개설됐다. 남북경협아카데미는 인천대와 기호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

대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등이 주관하고 있다. 아카데미가 개설된 이후 그동안 11기까지 총 500여 명의 원우를 배출한 인천을 대표하는 'CEO 강좌'다. 이날 특강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와 한국의 국가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견을 전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 경제 발전의 잠재적 요소를 지난 북한의 지하지원 활용과 개성공단 등 인접 협력 전략, 황해경제권 구축 등을 통해 남·북한 경제 공동 형성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강

조했다. 이 전 장관의 특강을 끝으로 '제11기 인천대 남북아카데미'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어진 11기 수료식에서는 이갑영 인천대 남북아카데미 원장과 최용관 인천대 남북아카데미 총원우 회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등이 참석해 김왕규 11기 회장을 비롯해 총 29명의 수료생에게 수료패를 전달했다. 한편, 인천대 남북경협 아카데미는 이달 중 12기를 모집해 오는 9월 28일부터 10주간 강의를 다시 펼친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 시청각 장애인용 TV 저소득층에 무료보급

**시·방통위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가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청각 장애인용 텔레비전(TV) 무료 보급 사업' 신청을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시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송소외계층인 시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전용 TV(자막·화면해설) 1천530여 대와 리모컨(원클릭 핫키)을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보급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28인치형 LED HD TV로, 장애인의 편리한 방송 시청을 위해 핫키가 포함된 전용 리모컨을 처음으로 제공한 다.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사용하는 모든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음성 안내의 속도와 음성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의 편의 기능이 탑재됐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으로는 자막방송을 9개 위치로 자유롭

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폰트·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신청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맞춤형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장애등급, 나이 등을 고려해 우선 보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신청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들이 방송에 쉽게 접근하고, 더욱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게 돼 방송 접근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대 창업리그 전국예선 10개 팀 수상

인천대학교는 1일 송도 미추홀 캠퍼스에서 최성을 총장, 박선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등 내외빈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 시상식 및 학생 창업공간(DO:LAB)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집을 거쳐 126개 팀이 참가,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이날 수상팀에게 지급된 총 상금은 2천만 원으로 각 부문 대상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 2개 팀에게는 각 300만 원, 우수상 2개 팀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4개 팀에게는 각 50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가장 높은 점수로 대상을

차지한 제조부문 대상(썬아이엔에이)이치대표 김인규)에게는 도전 K-스타트업 2016년 진출권도 부여됐다. 최성을 총장은 "인천대는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창업리그와 창업동아리를 통해 육성된 창업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도 "대한민국 창업리그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동아리 및 학생 창업자 육성·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 송도 8공구 M1 입찰 대박

**주상복합 1필지 3413억 낙찰  
예정가보다 811억원 더 많아  
입찰기간 짧아 경쟁 높인듯**

송도 8공구 M1블록 입찰에서 재맛이 터졌다. 인천시는 1일 진행된 송도 8공구 M1블록(연수구 송도동 311와 1필지)이 공개경쟁 입찰에서 예정가 2천602억 원보다 811억원이 많은 3천413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M1블록은 주상복합용지 M1-1(송도동 311번지 4만9천46.1㎡), M1-2(송도동 311-1번지, 3만259.8㎡)로 각각 나누어 매각을 진행했다. 입찰 결과 M1-1블록은 2천56억 원(예정가격 1천600억 원, 낙찰률 128%), M1-2블록은 1천357억 원(예정가격 1천2억 원, 낙찰률 135%)에 각각 낙찰됐다. 이번 M1블록 입찰에는 총 5개 업체가 응찰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디에스네트웍스(주)가 두 블록 모두 낙찰됐다. 시는 이번 M1블록 매각과 함께 지난 5월 A2블록 등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상반기에만 5천503억 원의 매각 실적을 올려 올해 공유재산 매각 세입 목표액인 4천7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특히 A2블록과 M1블록 매각에서 예정가 대비 약 1천억 원이 더 많은 매각 수입을 거둬 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올해 초 시행된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역대 매각에서 볼 수 없었던 높은 경쟁률과 낙찰률을 보였다"며 "매각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은 물론 앞선 A2블록과 비교했을 때 전략적으로 짧은 입찰기간을 준 것이 매각가격 상승의 시너지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hihoilbo.co.kr

**이천의 꿈과 희망, 35만 계획도시를 향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꿈이 있는 교육문화도시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 ·소통하는 섬김행정

# ‘인천국제청’ 신설로 세금민원 ‘더부살이’ 끝내자

### 인천권역 이의신청 건수 ‘불똥’... 현 국제청 별관선 처리 불가 수원까지 찾아가야해 불편... 시 “전담 담당관실 신설 건의”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국세청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도시이자 공항과 항만을 갖춘 도시로 세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무를 처리할 독립기관이 없어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권 인구와 사업자 수, 이의신청 건수는 지방국세청이 설치돼 있는 타 지역을 웃돌거나 비슷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과 부천·

김포·고양·파주 등을 포함한 인천권 인구는 551만6천 명으로 대전지방국세청(대전·충북·충남·세종) 관할 인구 532만9천 명, 광주지방국세청(광주·전북·전남) 525만3천 명, 대구지방국세청(대구·경북) 519만4천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자 수도 마찬가지다. 인천권의 법인사업자는 5만5천123개로 대구청 관할 법인사업자 4만5천801개보다 많고 대전청(5만5천352개)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 개인사업자는 인천권이 61만 명으

로 대전권 56만 명, 광주권 52만 명, 대구권 54만 명보다 많다. 특히 세수는 인천권이 9조1천억 원으로, 대구청이 징수하는 8조6천억 원보다 많고 광주청(11조5천억 원), 대전청(14조6천억 원)과 비교해도 규모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인천권을 관할하는 기관은 독립된 지방국세청이 아닌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이다. 더구나 중부청 인천권 관할 세무서는 9곳에 불과해 대전(15곳), 광주(14곳), 대구(13곳)와 비교가 된다.

또 중부청 인천별관에는 세무조사 담당하는 조사4국만 설치돼 인천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려면 수원에 있는 중부청까지 가야 하

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중부청 총 이의신청 건수(2천500건) 중 인천·부천 지역의 이의신청이 500여 건에 달했는데 이는 대전·광주·대구청 등의 약 400건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청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조직의 슬림화·효율화 추세에 있어 기관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청 신설 요구에 앞서 중부청에 인천권 전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부청 인천별관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수원까지 찾아가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인천권 전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설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승원 인천경찰청 사무처장은 “인구 300만 명 시대를 맞아 세금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넘어 인천청 설치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인천청을 원도심에 설치해 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에 불쏘를 뜨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경수·박승희·신영은·제갈원영 시의회 의장후보 넷 표몰이 나서

### 24일 선출... 저마다 물밑접촉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일이 확정되면서 의장 후보들이 막판 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33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 1일 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의장 몫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은 2차 본회의 하루 전인 23일 인천시당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노경수(중구1) 현 의장과 박승희(서구4) 제1부의장, 신영은(남동2) 의원, 제갈원영(연수3)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노경수 의장은 유례없는 전후반기 의장직 독식에 대한 우려에도 안정적인 시의회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을 결집하고 있다. 박승희 부의장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소통하는 우직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4선으로 인천시의회 최다선인 신영은 의원은 다선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료 의원 다수에게 뚜렷한 지지를 얻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과 제물포고 동기인 제갈원영 의원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의원 24명 가운데 7표를 획득해 한 표 차이로 노 의장에 밀렸으나 2년 동안의 와신상담 끝에 많은 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등 감투를 썼던 인사들의 후퇴를 내걸고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유 시장 친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후보들의 장단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호불호(好不好)를 드러내지 않아 후보들의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한 후보는 “나를 열심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뚜렷하게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별로 없다”며 “후보들이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의원들을 모두 열거하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40명은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최기산 주교의 선종을 듣고 인천 담동성당을 찾은 문상 행렬. <사진=천주교 인천교구 제공>

## 장례미사 생중계... 추모행렬 화답

故 최기산 인천교구장 추모 문상 인파 밤늦게까지 몰려 오늘 평화방송서 특집방송



이 특집방송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교구 설립 41년 만인 2002년 첫 교구 출신 교구장으로 작좌해 14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걸어온 최 주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천 담동성당을 찾아온 많은 추모객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사제서품 동기인 이찬우 신부(부천 상동 본당 주임)는 “친구·동료 사제이자 보필해 온 교구장 주교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 나라로 잘 가시게’라고 인사 드렸다”고 전했다.

비서로서 결을 지킨 김마리 페르페투아 수녀는 “늘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했던 주교님”이라고 회상했다.

천주교 인천교구장 고(故)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의 2일 장례미사가 생중계된다.

이번 장례식 생중계는 2009년 2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미사 생중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최기산 주교 추모영상 홈페이지 게시에 이어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평화방송을 통해 장례미사가 생중계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교구 제2대 교구장인 최기산 주교의 지난달 30일 갑작스러운 선종 소식이 전해지고 사흘째인 1일에도 문상 행렬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평화방송

## 청운대, 2016학년도 취업연계 중점대학 최종 선정

청운대학교는 1일 교육부 주관 ‘2016학년도 취업 연계 중점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 목표의 적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효율성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기대효과 및 파급력 등에 대한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전국 25개 대학이 뽑혔다.

근로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고 대학이 제시한 취업 연계 브랜드화, 우수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학마다 3억 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된다.

청운대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지역의 우수기업을 유치,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학생들의 현장실무 경험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청운대는 기업과 학생 맞춤형 매칭시스템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산업체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석형 산학협력단장은 “창의·실용 특성화교육에 맞도록 취·창

**김홍기의 기호만평**

7005701 5702 5703 5704 5705 5706  
6825 6826 6827 6828 6829 6830  
6 7997 7998 7999 8000

기호시(생체)연구소 **8000** **포유류**...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 공간의 가치를 빛나게하는 기술로 언제나 고객중심의 생활공간을 창조를 선도하는 기업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술로 감각이 돋보이는 전문가들의 기술이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두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주주는 물론 근로자와 소비자, 지역사회 등과 폭넓은 관계를 가지며 일방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 등 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만족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묵묵히 실천하는 나눔

## 강판 매만지던 손 '이웃愛' 문을 열다

<애>

**# 임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모임 '연탄길'**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 중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탄길'은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1999년 평택시 천혜보육원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노숙자와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랑의 밥 나누기 및 도시락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월 홀몸노인을 방문해 '이·미용봉사', 결혼가정 등에 생필품과 쌀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소년소녀가정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장애 및 보육시설 지원, 저소득 가정에 연탄 지원 및 보일러 교체·수리를 해 주는 '연탄나눔 은행'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쌍용자동차 임직원들과 김인식 평택시의회 의장, 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평택 연탄나눔은행 발대식'을 갖고 후원금과 연탄을 전달했으며, 발대식을 마치고 소외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배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평택 연탄나눔은행은 2007년 후원을 시작한 이래 매년 임직원의 뜻을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꾸준히 지역주민들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평택 환경축제 후원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 지원**  
쌍용자동차는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의식 전환과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알뜰 나눔장터, 1사 1하천 가꾸기 및 평택시 환경축제 후원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제8회 평택 환경축제에 후원사로 참여해 알뜰 나눔장터와 평택 환경학생 미술실기대회를 주관하는 등 평택시민들과 함께 환경문제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알뜰 나눔장터에서는 판매를 원하면 누구나 등록 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수익금 일부는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된다.

**#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 위해 사회 공헌활동 전개**  
이러한 활동 외에도 쌍용자동차는 2011년 지역 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1억5천만 원을 출자해 '한마음장학회'를 설립, 이듬해인 2012년부터 매년 평택지역 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환경다터제'를 평택시와 공동으로 진행해 중소기업 성장에는 남다른 기여를 하고 있다.  
**# 지속적인 산학 협력활동 추진**  
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정비 분야의 우수 인력 육성과 정비기술력 보급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교·보재 기증은 물론 신기술 정비교육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 현장실습 기회 제

를 위한 '호두바이커' 캠페인  
쌍용자동차는 키즈세이프코리아와 손잡고 안전한 자전거 생활 정착을 위한 '호두바이커(호두는 안전모의 애칭으로 호두바이커는 안전모를 착용한 자전거 탑승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호두바이커 캠페인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 대부분이 머리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이 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헬멧 착용 생활화를 통한 사고 피해 최소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평택 위해  
실천안 찾아나갈 것

- ▶ 최중식 대표이사.
- ▶ Kids Safe 캠페인 활동.
- ▶ 쌍용자동차 전경.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월 일정액을 기탁하는 등 나눔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평택항 마라톤 및 시민건강대회 후원, 도서 기증 등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앞으로도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후원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 밖에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하천인 도일천과 통복천 일대 정화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공, 정비교육 사이버(Cyber)연수원 확대 및 정비기술 자료 공유 등 산학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평택시 국제대학교에서 쌍용자동차 기술개발부문 이재완 부사장, 국제대 장기원 총장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기술개발부문 및 인력관리부문 임직원, 국제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쌍용자동차는 협약을 통해 코란도C 1대를 연구실 습용으로 학교 측에 기증하고, 향후 ▶공동 연구과제 선정 및 실습 ▶교수진 및 현업 종사자 연수 ▶연구시설 및 기자재 공동 사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쌍용자동차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최중식 대표이사는 "쌍용자동차는 기업시민 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성기 기자 hjk@khihoilbo.co.kr

文

명품 공연 형류.



삼성전자 DS부문 기흥·화성캠퍼스 사회봉사단은 1994년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DS부문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태동한 봉사단체다.

용인·화성·오산·평택·안성·여주 등지를 활동 대상으로 지역사회 소통, 아동·청소년 인재 양성, 소외계층 자립 지원, 사회공익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봉사단은 연평균 봉사시간이 1인당 15시간에 달했고, 정기기부 참여율과 봉사활동 참여율이 각각 95%, 98%를 기록할 정도로 그야말로 봉사의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사내 봉사팀이 450여 개에 이를 정도다.

봉사단의 주요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教 청소년 진로상담. 소외이웃 김장나눔.



勞 실버 일자리 지원.



#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사랑으로 사람을 잇다

**SAMSUNG**  
삼성전자 DS 기흥·화성캠퍼스 봉사로 지역과 소통

▶지역사회 소통=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걷기 축제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과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樂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사내장터 운영'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지난해 9월 12일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이 펼쳐졌다.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공동 주최한 행사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시민 1명당 5천 원의 참가비를 내고 동참하면 삼성전자가 같은 액수만큼 기부하는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펼쳐졌다.

걷기대회는 운동장 주변 경안천 산책로 6km 구간을 걸쳐 진행됐다. 시민과 삼성 임직원 등 3만4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 기부금과 삼성전자의 매칭펀드로 마련된 3억4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전액 기부했다.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시민과 임직원 2만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성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이 열려 2억1천여만 원의 성금을 조성해 화성시에 기부했다.

또 청소년 진로 탐색 교육 페스티벌인 '2015 드림樂서-용인편'이 지난해 11월 3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용인지역 31개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드림樂서'는 진로 결정에 고민이 많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희망 학과와 직업을 체험하고, 전문가 멘토와 상담하며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삼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걷기 참가자 나눔만큼 기부하는 '1+1 매칭그랜트' 용인시와 펼쳐 모종~수확 직접 기른 배추 절여 자매결연 농촌 10곳서 김장행사 문화공연 관람·'CAFE休' 등 소외·노년층 지원사업도 진행 중

같은 해 8월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김장 행사는 용인·화성·평택·화천·홍천 등 자매결연 농촌 마을 10곳에서 임직원 봉사자들이 직접 배추모종 심기부터 수확하고 절이는 모든 과정에 일손을 더하고 그 채소를 김장재료로 구매함으로써 농가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김장행사를 통해 총 100t(약 5만 포기)의 김치를 담가 기흥·화성캠퍼스 인근 화성·용인·평택·오산시 관내 저소득층 1만 가정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소외계층 자립 지원=차상위계층 생필품 지원 사업인 '오케이(5km) 365 희망전사', 소외계층에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위시존(WISH ZONE)',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CAFE休', 다문화·장애인 합동결혼식, 저소득층 출산 지원 사업인 '해피맘' 등이 해당 사업이다.

삼성전자와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3월 10일 용인시청에서 문화 소외계층 객석 나눔을 위한 '2016년 문화예술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고 임직원 후원금 5천만 원을 재단에 전달했다.

협약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흥영동 삼성전자 DS부문 사회봉사단 부단장, 이명훈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 노사협의회 사원대표,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삼성전자의 객석 나눔(위시존) 활동은 경제 형편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공연장 객석의 일부를 확보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이 활동을 전개해 지난해까지 68개 작품에 용인·화성지역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1만여 명을 초청해 문화예술을 통

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감동을 선사하는 정서적 소통을 펼쳐 왔다.

올해도 용인문화재단과 협력해 2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뮤지컬과 국악, 클래식 등 수준 높은 11개 작품을 선별해 지역사회 문화 소외계층 1천100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와 용인시니어클럽이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음료 매장 'CAFE休-8호점'을 용인시 처인구 모현도서관에 열고 축하행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삶에 활력을 더하고자 2011년부터 용인·화성시와 함께 'CAFE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AFE休-8호점'은 용인시가 제공한 도서관 일부 공간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모은 후원금 5천만 원을 들여 설비와 가구 등 시설 공사를 마치고 용인시니어클럽이 시설 운영과 노인들의 직업(바리스타·서비스)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을 맡는다.

특히 반도체총괄사업부별 특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메모리사업부=청소년 반도체 과학교실, 희망채색(벽화) ▶System LSI사업부=다문화 가족 지원 ▶반도체연구소=핸즈온(Hands-on) 기부물품 제작 ▶기흥·화성단지총괄=사랑의 집짓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LED사업부=희망의 빛 모아 셰이프(자매마을 LED보안등 교체) 등이다.

삼성전자 DS부문 기흥·화성캠퍼스 사회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여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행형이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olbo.co.kr



반도체 과학교실.

## 아동·청소년 배움의 길 활짝 열어

▶'희망드림' 등 인재양성 사업 활발

▶아동·청소년 인재 양성=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및 정서 발달 교육인 '삼성전자 희망드림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과학교실 '반도체 과학교실', 난치병 아동 소원 성취 사업 '소원별 희망전사'가 분야 대표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9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양지햇살 지역아동센터에서 '2016년 삼성 희망드림 협약식'을 갖고 올해 사업비로 지난해(8억5천만 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15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삼성 희망드림'은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시설물 환경 개선(희망하우스), 합창을 통한 전인 발달(희망소리), 주말 방임아동 보호·심리치료(희망토요일), 학습·진로 멘토링(희망클래스)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혜 대상은 경기도내 14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천850여 명의 아동으로 각 프로그램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스리기 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동부

본부, TMD 교육그룹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들과 협업해 추진한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반도체 과학교실'은 올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반도체 과학교실은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에서 진행되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과학교사가 돼 용인·화성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과 반도체 회로 만들기 등 실습교육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난치병 아동 소원 성취 프로그램 '소원별희망전사'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24일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이루 주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소원별희망전사 사업은 단순 기부를 넘어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아동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의미가 크다. 2007년 4월 11일 첫 협약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9억 원의 후원금이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에 전달됐으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포함해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난치병 아동 905명의 소원을 실현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난치병 아동 150명에게 소원 성취의 기쁨을 선사한다는 목표로 6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olbo.co.kr

경기신용보증재단  
더불어 삶 '실천'



경기신보는 콜센터를 개소해 보증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제빵·농촌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 한문두문 직원 급여 '끝전 모아 태산'...

## 한발두발 소외이웃 소망까지 보증

올해 스무 살이 된 한 청년이 있다. 그는 지난 20년간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앞장섰다. IMF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까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청년의 이름은 바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하 경기신보)'이다. 선진 보증기관으로 그동안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살피고 지원해 온 경기신보지만 한쪽에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기관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경기신보는 업무 특성과 관련된 재능기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추진**  
지난해 7월, 평택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이 뜰 끊겨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었다. 월 80만 원인 가게 임대료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인 데다 가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차마 직원들 급여는 미룰 수 없어 은행 방문해 대출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담보 여력이 부족해 대출이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A씨는 '사채라도 써야겠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인근 식당에서 경기신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A씨도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경기신보를 찾았다. A씨는 직원에게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았고, 그 주에 경기신보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사채까지 생각했던 A씨가 경기신보를 통해 담보 없이, 저금리로, 1금융권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경기신보는 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기신보의 업무 영역 자체가 사회공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평택지점의 경우 메르스 발생 3개월간 특별지원에 나서 총 1만5천236개 업체에 3천57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신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증지원은 도내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일조,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 시간은 곧 '돈', 현장 중심 보증지원**  
경기신보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현장보증 전담팀'을 도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대표자인 기업이 온누리 지역 소재 기업, 5년

담보력 부족 영세 상공인 자금조달 돕고  
현장보증·전화상담 등 지원영역 확대 중  
월급 끝전 강제액 더해 기부금 조성하고  
농촌 일손돕기·사회복지기관 연계 노력

에 찬성하고 조성한 기부문화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밖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총 1천500만 원의 성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등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했다.  
지역사회 농촌 일손 돕기도 경기신보의 또 다른 사회공헌활동이다. 농번기를 맞아 지역사회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간 이해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증진을 위해 매년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양주시 한 딸기농가를 직원 20여 명이 방문해 일손을 보였고, 올해도 안성시내 양파농가와 김포시내 배농가를 방문해 제조 작업 및 주변 정리를 돕는 등 농촌 주민들의 일손 부족에 대한 시름을 덜어줬다. 2004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파주·이천·고양·안성·가평 등 총 10개 지역의 농가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공헌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기신보는 제빵 수업을 듣고 빵을 직접 만들어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한편, 홀몸노인 지원을 위해 국수 포장에 나서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수혜자 마음 헤아려야 진정 사회봉사조

인터뷰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



-경기신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  
▶경기신보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사랑나눔기금과 임직원들의 급여 중 1만 원 미만의 금액을 공제한 끝전 강제 모금액을 바탕으로 매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있다. 기부처 또한 노조와 함께 구성된 사회공헌실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어 노사가 함께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농촌봉사활동과 지난해 사회공헌 협약을 맺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의 인력 지원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겨울철 홀몸노인 돕기 김장담그기 및 자연보호운동, 기타 사랑의 헌혈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취임 직후 라이선스버킷 챌린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사회공헌활동이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경기신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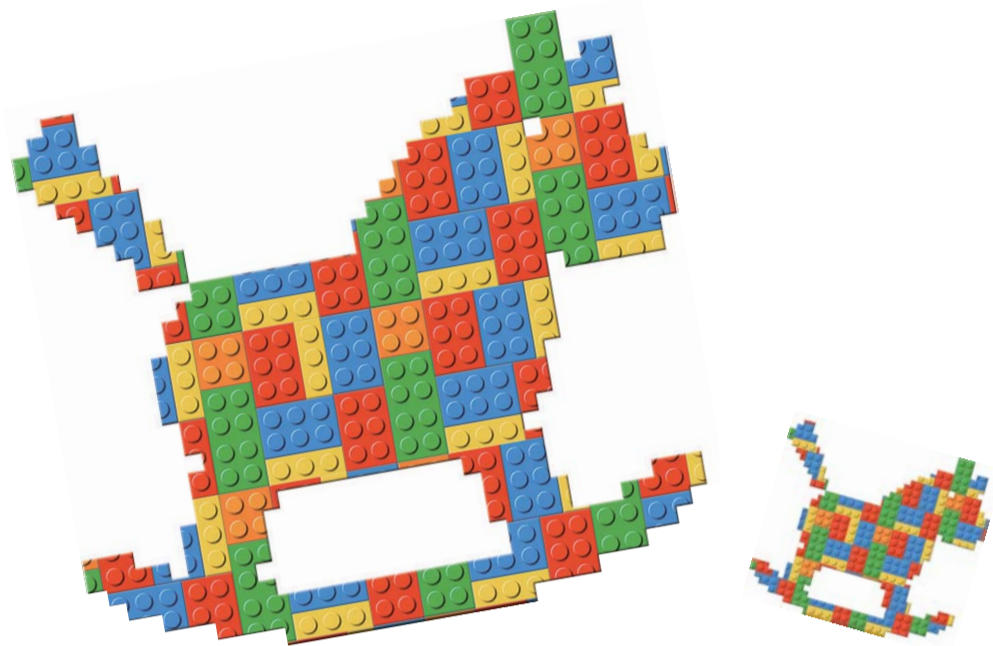
사회공헌을 업무라고 생각하고 조직성과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시각에만 머무는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지역민들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보다는 수혜자들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담아낸 활동이야말로 성공한 기업의 사회봉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책임에서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 사랑나눔 기부와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업무 특성과 관련된 재능기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   
박광섭 기자 ksp@khiolbo.co.kr

#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선도  
경기신보의 사회공헌은 다방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김병기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쪽방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라이선스 버킷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능기부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와 연계해 직접 자금상담 및 경영 컨설팅을 총 23회 제공했고 광주소상공인연합회에 정부정책자금 교육을 실시하는 한

편, 도내 금융기관장 보증상품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이 밖에 결혼가정을 위한 송암동산 봉사활동과 겨울철 홀몸노인을 돕고자 YWAC와 협력해 진행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광고호수공원 환경미화 캠페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하계 유니폼 등 피복 400여 벌 기부, 평택 해군2함대 장병들을 위한 도서 3천여 권 및 성금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광섭 기자 ksp@khiolbo.co.kr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점점 더 확실하고 꾸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 상생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바야흐로 기업 입장에서 사회공헌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를 맞이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발맞춰 기업들의 사회공헌 패러다임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기부와 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다면 현재는 좀 더 전문적이고 개성적인 특색을 띠고 있다. 각 기업의 특성과 재능을 살린 효율적인 공헌 방식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은 물론 기업의 특색을 홍보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들여다봤다.



재활 승마 프로그램.

## 말과 함께 교감하며 달리니... 지친 몸과 마음 '토닥토닥'

LetsRun

한국마사회  
재활승마 재능기부

### # 한국마사회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한국마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렛츠런 승마힐링센터다. 마사회 고유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해 탄생한 공헌활동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3월 핵심 사회공헌 분야를 발굴할 목적에 일반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활·힐링승마', '전사 재능기부 활동' 두 가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재활·힐링승마'의 경우 말(馬)을 매개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유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신(新)치료법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승마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 참전 용사를 위한 치유승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정도다.

마사회는 이러한 재활·힐링승마의 국내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렛츠런 승마힐링센터(센터장 박진국)를 신설했다. 이후 렛츠런파크 서울 내에 직영 1호점을 개장하고 9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장애아동 40명에게 양질의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했다. 2015년 자체 시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9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올해 렛츠런 승마힐링센터는 재활·힐링승마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곳에 불과했던 사업장을 올해는 4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인력양성을 위해 해외 전문인력도 위촉했다.

강습 프로그램과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는 장애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만 재활승마를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힐링승마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대인관계 미숙, 학교폭력 등의 요인으로 사회 적응에 문제를 가진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며 단체강습, 동물교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복귀를 두려하는 한편, 말산업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진로 모색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에만 벌써 50명의 학생들이 강습에 참여 중이다. 단순히 강습에만 치우치지 않고 심리안정 상담 프로그램 등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규모도 대폭 확대해 올해는 여름·겨울 특별수업을 포함해 총 5개 학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40여 명에 불과했던 수강생을 올해는 3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바우처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정에도 강습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강습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박진국 센터장은 "재활·힐링승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

원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은 수의, 장애, 방역 등 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말산업 진로, 직업 체험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마사회는 4월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

공하는 게 목적이다. '플러스'는 취약계층이나 말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법률·회계상담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1천346명 '렛츠런 청소년 드림센터' 이용, 458명 사회 복귀 지원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 중 학교 밖 청소년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렛츠런 청소년 드림센터'를 만들었다. 렛츠런재단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렛츠런재단은 드림센터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진구,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등 12개 센터에 총 4억5천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 중랑구의 경우 상담 지원은 물론 검정고시, 바리스타, 승마 체험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줬다. 부산 진구 렛츠런 청소년 드림센터 역시 상담, 학습클리닉,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청소년 1천346명이 드림센터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았으며, 학업에 복귀하거나 일자리를 구한 청소년도 458명에 달했다. 그 뿐만 아니라 렛츠런 청소년 드림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200여 개 창출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렛츠런재단은 15개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설립된 17개 드림센터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총 32개 드림센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렛츠런재단은 올해 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수혜 청소년과 사회복귀 청소년 확대에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승마 체험, 말산업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정규화하는 한편, 30개 렛츠런 문화공감센터와 협력해 청소년 드림센터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신 렛츠런재단 사무총장은 "올해 1천8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중 600명 이상을 학업이나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현재 계획"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자유공간과 더불어 힐링승마 체험 등 새로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검토해 정부 3.0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은·윤승재 기자 ysj@khihoilbo.co.kr



작년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운영 시작  
장애아동 대상 재활 강습 큰 호평 얻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선보

국내 말 생산농가에 노하우·지식 전달  
재능기부 활동으로 지역 상생발전 기여

는 치료법"이라며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 전사 재능기부 활동, 전체 임직원 87% 참여

'전사 재능기부 활동'은 '재활·승마힐링'과 함께 마사회의 핵심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말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나 승마장이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사회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전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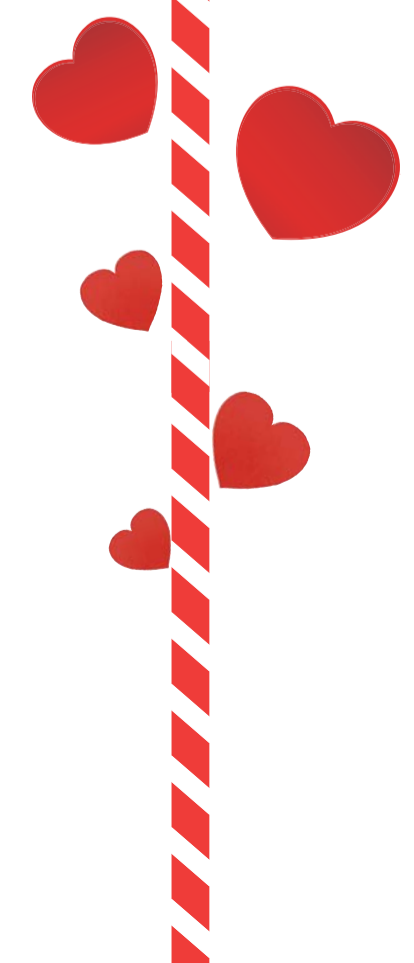
이를 위해 마사회는 지난해 말 생산농가와 민간 승마장, 말 특성화고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현명관 회장을 비롯해 참여 인원만 600여 명. 마사회 전체 임직



▲▲ 전사적 재능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마사회, ▲ 렛츠런 드림센터 대전 개소식.

으로 제1차 '프로보노데이(ProBonoDay)'를 개최하고 말산업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천시에 소재한 말 생산농가 성수목장(대표 이종욱)을 비롯해 민간 승마장, 지역사회 취약계층, 북한이탈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현명관 회장을 포함해 참여 인원만 1천980명으로 마사회 전체 임직원의 87%에 달하는 인원이다.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마사회는 활동 영역에 따라 렛츠런 엔젤스 '프렌즈'와 '패밀리', '플러스'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프렌즈'의 경우 말 생산농가와 민간 승마장을 대상으로 수의, 장애, 방역, 육성 조언 등의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패밀리'는 학생이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또는 말산업 진로 체험 서비스를 제



### 행복 이전 만드는 'G-하우징 사업'

복지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다. 하지만 이천시에서는 형편이 조금 나은 이웃이 어려운 이웃을 케어하는 사업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살기 좋은 고장 이전을 만드는 데 발맞춰 건설업체, 단체 등이 앞장서 각자의 재능을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희망을 주고 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맘 흘러 봉사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주거 형태를 개선해 주는 이들이 있어 행복한 이전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제도권의 수급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저소득 취약계층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 등 각종 생활고에 시달려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천시와 재능을 기부한 건설업체·단체가 손을 잡고 어려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5년째 펼치고 있는 G-하우징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 살기 좋은 이전을 만들고자 G-하우징 사업에 참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단체들. 2 이전 G-하우징 & 행복한 동행 재능기부 기탁식. 3

## 새 장판 깔고 문턱엔 계단... 낡은 벽에 '사랑빛' 물드네

어려운 이웃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특히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혜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사업 초창기에는 초석종합건설(대표 조정민), 성민종합건설(대표 김영근), 에이스컨테이너(대표 장치석) 등 3개 업체만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재능기부 소식을 전해 들은 건축사협회(회장 이종희), 명서원시스(대표 김종희), 지오(대표 김해숙), 대영이엔지(대표 김재문), 중앙로타리클럽(회장 허정화) 등 5개 기업·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주로 장호와 실내 인테리어 등의 재능을 갖고 있는 지오, 대영이엔지, 명서원시스는 "건축의 한 일부분이지만 다른 업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 대표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수혜자들과 대화를 하며 낡은 주택에서 가장 열악한 '단열'을 책임지고 있다"며 흐뭇한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뜻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전 시가 선진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폭제가 되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걸맞은 세계 속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이천시는 3월 말까지 대상자 추천을 받아 차상위, 홀몸노인, 장애인 등 주로 저소득 소외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선정했다. 주로 단열, 도배·장판 교체, 외벽 도색, 지붕 누수, 수세식 화장실 시설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을 10월까지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전소방서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키로 하는 등 동참을 약속했으며, 특히 이전 시 건축과는 2개월 동안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전 모으

기 행사를 통해 희망의 전등 달아주기 운동을 벌이는 등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위해 노력하고 있다.

# G-하우징 주거환경 개선 사례 남편과 함께 도시에서 이천시 설성면의 한 시골마을로 내려온 이모(87)할머니.

현장을 방문해 보니 홀로 사는 할머니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귀촌의 꿈을 안고 이전에 내려왔으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30년이 넘는 가옥에서 50cm가 넘는 문턱을 넘나들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한 집을 떠날 수 없어 낡은 가옥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

성민종합건설 김영근 대표의 도움을 받아 꽃무늬 벽지로 도배하고 장판도 깔아 주며 문턱에 나무계단을 설치해 아픈 무릎을 세우며 애써 힘들이지 않고도 할머니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

막상 뜯어보니 흙벽집이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작업이 오후 7시에 마무리되는 등 고된 하루였지만 할머니의 환한 웃음에 봉사자들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고 보람을 느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중순 지체장애 3급인 동생과 살고 있는 최모(부발읍씨). 이들은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진 오래된 주택의 지붕이 새고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니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G-하우징 동참 업체인 초석종합건설 조정민 대표와 직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직접 나서 그동안 바깥으로 출입했던 화장실을 실내에 설치하고, 주방과 보



공사 전 공사 후 성민종합건설이 50cm 턱을 넘어 다니야 하는 할머니를 위해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장판도 깔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저소득층 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복지사업 성민종합건설 등 지역기업·단체 잇단 동참 단열·외벽 도색·실내 화장실 설치 등 지원 쓰러져가는 집 다시 세워 따뜻한 쉼터 선물

일러 등을 수리·교체해 줬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따뜻한 안식처를 안겨 줬다.

에이스컨테이너 장치석 대표는 지난해 6월 중순 설성면에 살고 있는 박모 씨 집을 방문해 그들의 주거환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상수도가 공급됐으나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들에게 상수도를 연결시켜 줬고, 쓰러져 가는 집을 다시 세워 줬다. 주택 기반 기초공사, 상수도 연결 작업, 지붕 처마 물받이 설치, 지붕 수리, 현관 시멘트 미장, 현관문 교체 등 새로운 집에서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천=신은백 기자 syb@kihoilbo.co.kr

### 열악한 집안 환경 보고 봉사 결심

인터뷰 장치석 에이스컨테이너 대표



"처음에는 내 사업도 어려워 거절했었어요." 수차례 취재 요청을 거절해 우여곡절 끝에 만난 에이스컨테이너 장치석(47)대표의 첫마디다.

장 대표는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20대 초반까지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았다.

5년째 G-하우징 사업은 물론 남모르게 이웃을 돕고 있는 장 대표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사를 짓다 도심으로 나온 그가 처음 선택한 직업은 용접공.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돈이 모이자 2007년 컨테이너 수리 및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

장 대표의 사정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자라 무료 봉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하며 장 대표는 겸연쩍게 머리를 긁는다.

그러다 장 대표는 자신들은 건축에 대해 잘 모르니 현장을 보고 설명이라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고 봉사를 결심했다.

지난해 구제역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수질오염이 의심되는 곳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가 제일 안타까웠다고 말하는 장 대표.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상수도를 연결시켜 줬다는 대목에서 눈시울을 적셨다.

"마음이 행복해서 그런지 사업도 잘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미소 짓는 장 대표에게서 행복한 표정이 묻어났다.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 상상보다 더 넓게

세계화, 정보화에 앞장서는 기호일보

많은 세상을 향해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지난날의 시간을 반추하고 새로운 내일의 밑거름 삼아 보다 맑고, 넓고, 힘있는 언론매체로 도약하길 바랍니다.

이 환



### 화성도시공사 이웃과 함께 성장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을 보유한 화성시는 2016년 5월 현재 인구가 62만여 명에 육박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젊은 도시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경기도내 1위의 기업체 입주율이 말해 주듯 화성시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지원하는 기업이 화성도시공사다. '화성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1997년 설립된 화성시시설관리공단과 2008년 설립된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통합돼 출범한 회사가 바로 화성도시공사다.

화성시 발전에 밑거름이 돼 주는 화성도시공사의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전곡항 마리나에서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한 요트 체험 행사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어보고 있다.

## 사랑의 밥차~아동 학습 지원... 희망 밝히는 등불

화성도시공사의 경영 목표는 바로 '행복 나눔 경영'이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추진으로 나눔과 봉사 문화 정착,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나눔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일과 후 부별 또는 팀별 중심의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추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눔활동을 발굴, 임직원 봉사활동을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 소외이웃 주거환경 리모델링 '행복나눔 사랑의 힐링하우스'와 '사랑의 의류' '행복나눔 사랑의 힐링하우스'는 공사가 2013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시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정해 공사의 인력과 기술 노하우로 집을 수리해 주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2013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15년 4호점까지 매년 주거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으며, 부서 차원의 집수리 봉사도 병행해 오고 있다.

공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화성시 관내 취약계층 및 재난을 겪는 이웃 국가에 하계·동계 생활 필수품인 의류를 지원해 왔다.

# '행복나눔 사랑의 밥차'와 지역아동

### '무료 강습'

공사는 지난해 총 4회의 '행복나눔 사랑의 밥차 행사'를 가졌다. 노사가 함께 참여해 결식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단체와 연계해 건강검진, 이·미용, 효음약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지속적으로

### 행복나눔 경영 모토 봉사센터와 연합 무료급식·건강검진 등 지속적인 활동 소외이웃 주거개선 사업 '힐링하우스' 2013년부터 총 4곳 집수리 봉사 완료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8월 방학을 맞아 보호시설 아동 30명을 전곡항 마리나에 초청해 요트 승선 체험 및 교육, 편보트 체험, 영화감상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11월에는 수영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20명을 초청해 수영체험 학습, 탁구 등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급성장 도시, 화성 개발 수요 폭발적 증가 이같이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공사는 공공성격의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도시발전 전략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능력 강화, 개발이의

역의 유출방지 및 낙후지역 재투자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화성시 산하 공기기업이다.

화성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은 자체 개발하는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으며 신규 사업은 동탄2지구(A-36BL, A-42BL) 공동주택 건설이 있다.

여기에 위·수탁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현충탑 재정비 등이, 위·수탁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 관리 운영 등 16개 사업이 있다.

### # 조암 공동주택 건설과 전곡 해양일반 산업단지 조성

조암 공동주택사업은 화성시 서남부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 도시기능을 유도하고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조암지구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양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주거 공급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곡 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은 지난해 3월 전문 분양 대행업체를 선정해 분양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그 외 필지 분할, 신규 업종 추가(총 16개) 및 업종 혼용 배치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분양 전략을 통해 분양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분양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누계 분양률이 14.7%에 불과했으나 2016년 5월 현재 분양률 37.4%를 달성했으며 2019년까지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전철 기자 jch@kihoilbo.co.kr



인터뷰

윤용택 상임이사

### 경영 위기 극복 에너지 삼아 열혈 나눔

-재정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던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부터 놀라게 발전하고 있다. 재도약 배경은.

▶공사가 대외적으로는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경영 악화로 대외 이미지가 심각히 실추돼 존립 자체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실적 부진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극심한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는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놀라운 실적을 거둬 이 같은 경영 정상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공사로 발전하고 있다.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화성도시공사는 2008년 창립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 왔으며,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네팔 지원과 지역 및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의류 나눔 행사, 노사 협력을 통한 사랑의 힐링하우스,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직원들이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행복나눔 사랑의 밥차 활동으로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 산사태로 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지킬수 있는 사방댐 ! 산림조합이 튼튼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푸른숲반세기! 새 희망의 도약!!  
**여주시산림조합**

사방댐 사진

산사태발생 사진

# 의식주 기부로 따뜻하게... 나눔 펀드로 더 든든하게

## 경기도공사 특색있는 사회공헌

경기도공사는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상'을 수상했다. 최고명예대상은 누적기부금 5억 원 이상인 법인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고명예대상을 받은 것은 도시공사가 처음이다.

도시공사는 1997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주위의 소외된 곳 구석구석에 손을 내밀어 왔으며, 중소기업부터 미래의 인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맞춤형 복지마을, G-하우징, G-UM(지움) 등 도시공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사랑의 김장 나눔, 아동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등에 정기적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공사만의 특색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이 김치 담그기 행사에서 김치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 최금식 경기도공사 사장(오른쪽)이 대한적십자사 최고명예대상을 받고 있다.  
▲ 임직원들이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 # 낙후된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주는 'G-UM(지움) 리모델링'

지움은 2013년 도시공사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으로, 주거환경 분야 대표 NGO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국내 1위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LG하우시스, 도시공사 지움봉사단이 함께하는 도시공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도시공사는 2014년 지움 1호점인 남양주 노인공동생활시설인 '사랑의 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2호점인 남양주 노인공동생활시설 '안나의 집', 3호점인 안산 장애인복지시설 '만나복지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총 3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4호점으로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아동생활시설인 '우리공동체'를 선정했다. 우리공동체는 17명의 장애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공사는 시설 내·외부 단열·도배·도색 공사, 출입구 리모델링, DIY가구 제작·설치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 아이들에게 꿈을 선사하는 '꿈꾸는 공부방'

꿈꾸는 공부방은 도시공사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매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등 도내 20여 개 시·군 총 61개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공간 리모델링과 문화예술 공연 체험, 학습용품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도시공사는 시설 리모델링 대상 10곳과 교육기자재 후원 대상 10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관 선정은 경기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다.

###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미래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다. 도내 31개 시·군 저소득층 고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매년 신입생을 선발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장학생 및 가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올해

### 장애·노인시설 선정 도배·도색 등 작업 2014년부터 지역 3개 시설에 사랑 실천

교육기자·장학금 기부 인재양성도 시작 노사 매칭 후원 통해 조손가정 돕기 눈길 다양한 봉사 인정 '최고명예대상' 받기도

도 지난해 선발된 기존 장학생 58명에게 총 5천8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으며, 향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40여 명을 추가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 #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의(내복)·식(김치)·주(연탄)' 나눔 실천

도시공사는 지난해를 나눔문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도내 다양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기부와 봉사를 통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했다. 그 일환으로 도내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생활 필수요소인 의식주와 관련한 기초생활 물품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18일 도시공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

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 6천 포기의 김치를 직접 담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고, 12월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만 장의 연탄을 제공했다.

### # '희망키움펀드' 조손가정 결연 후원

도시공사 임직원 165명은 도내 조손가정과 후원 결연을 맺고 매일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후원금은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임직원 기부금에 도시공사 기부금이 추가되며, 모인 기부금은 도내 열악한 조손가정 총 72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농협상품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총 2천240만 원을 기부했고, 회사는 6천636만 원을 기부했다.

### # 응급구호품 제작 지원

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매년 재난·재해 이재민 등을 위한 응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품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직접 제작,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재해 피해자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

2013년 한여름 폭염에는 홀몸노인 270가구에 쿨매트를 전달했고, 2014년 세월호 사고 시에는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한 구호품과 임직원 성금 등 3천700여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네팔 지진 피해자들에게 구호품과 임직원 성금 등 1천500여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해외 구호 사업에도 참여했다.

강나눔 기자 hero43k@khihoibo.co.kr

## 공부방 정비~장학금 새싹 키우기 매진

### 인터뷰 최금식 경기도공사 사장

-지방공기업 최초로 대한적십자사의 최고명예대상을 받았는데.

▶G-UM(지움) 리모델링 사업, 꿈꾸는 공부방 등 도시공사의 '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 덕분에 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도시공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분야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도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은 시·군 협의를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을 병행 추진하겠다. 특히 지움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안으로 4·5·6호점을 완료할 예정이다. 꿈꾸는 공부방도 지역아동센터 20

개소를 새롭게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어캠프·공필 숙박 체험 등 취약계층 아동 대상 문화·역사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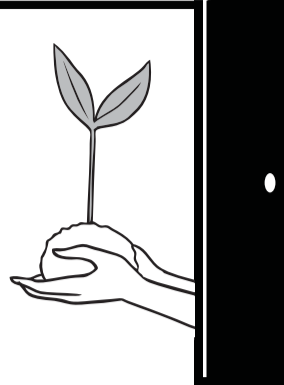
# 밝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설...

국가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경제동맥이며 끊임없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무한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로 최적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정진하겠습니다.

와이에스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 창립 이후 매년 사회공헌 봉사에 앞장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 농민들의 행복이 눈길을 끈다. 왼쪽부터 연탄배달, 김장나눔봉사, 자매마을인 전남 곡성 대평1구 마을 일손돕기 현장.

# 지역 소외층에 행복 주고 도농교류 마을과 상생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 따뜻한 동행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이사장 이소범)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식적인 사회공헌 봉사단체로,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복 나눔과 상생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랑나눔단은 2011년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득해 2012년 3월부터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식적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도매법인 임직원, 중도매인, 입주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6년 5월 현재 285명이다. 그동안 사랑나눔단은 김장 나누기, 행복한 명절 만들기, 화재 취약가구 소방기기 전달 등 '사랑 나눔 실천' 활동과 전남 곡성 대평 1구마을, 인천 무의도 포내어촌계, 제주 대정읍 지역아동센터와 '1사1촌 도·농교류' 등 2가지 나눔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 # 사랑나눔단의 나눔활동 실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의 나눔 실천 중 가장 큰 행사는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꼽을 수 있다.

매년 김장철이 되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 무, 젓갈 등 신선한 김장재료를 구입, 도매시장 유통인과 새마을운동 구리지회 회원들이 김장 5천 포기를 담가 1천200여 상자에 담아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센터, 지체장애인협회,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랑나눔단은 2014년 구리소방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사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는 사랑나눔단의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나눔 실천활동이다.

연탄 배달 봉사를 시작한 계기는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00장의 연탄이 지원되는데,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선 한 가구에 연탄 600장 정도가 필요해 연탄 300장씩 10가구에 총 3천장을 전달했고 올해는 3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장학금 및 격려금 행사도 눈길을 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도매시장 소속 미화원, 하역원 등을 후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도록 장학금과 격려금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행복한 명절 만들기, 수박 나눔, 사랑의 이불 기증, 사랑의 쌀 전달식 등 다양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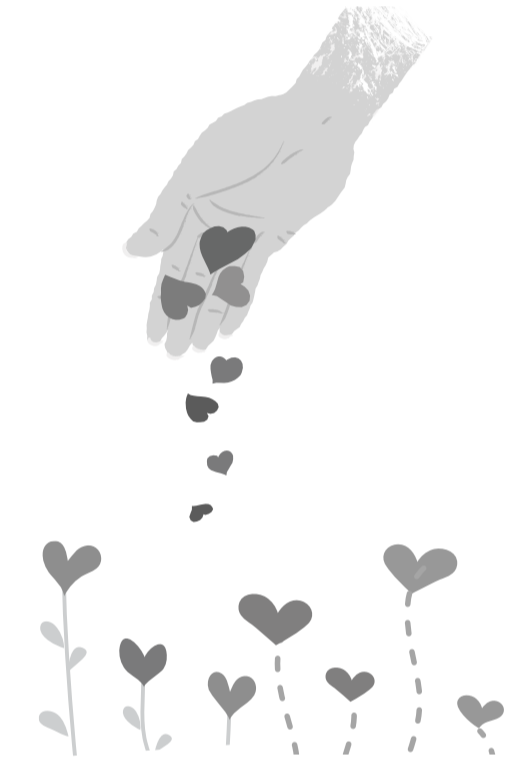
### # 1사1촌 도·농교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3년 7월 도매시장의 우수 출하지역인 전남 곡성 대평 1구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제값 받기 현장 설명회를 가져 포장 방법, 출하 요령 등을 설명해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우수 출하 주민자들을 도매시장에 초청해 시장 체험행사도 가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사랑나눔단 회원 35명이 곡성으로 내려가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 풀매기 등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활동도 펼쳤다. 2014년 10월에는 수협중앙회가 추천해 준 인천 무의도 포내어촌계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에 이어 어촌과도 다양한 도·농교류를 펼치고 있다.

또 제주 대정읍 지역아동센터와 1사1촌 결연으로 지난해 11월 대정읍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 2박 3일 동안 도매시장 견학 체험과 놀이공원, 고궁 관람, 남산타워 구경 등 추억을 남기고 돌아갔다.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맺은 대평 1구마을, 포내어촌계, 대정읍 지역아동센터와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출하지역과 도매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구리



2011년 9월 창립총회 개최 본격 활동 시작 김장나눔·연탄배달은 물론 장학금 기증도 출하지·도매시장 동반성장 프로그램 가동 고객 중심 마인드 '새 시장 만들기'도 박차

▲ 1사1촌 자매마을 농촌일손돕기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제주 대정읍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 자매마을 비닐하우스 치기, 변화와 혁신-새시장만들기운동 선포식.

농수산물물공사(사장 김우호)는 도매시장 전체 유통인과 함께 쾌적한 환경과 생동감 넘치는 도매시장을 조성하고 새 시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로 재무장하고 도매시장을 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먼저 정문과 패러핏, 방음벽 하단의 보기 싫은 벽면을 활용해 벽화를 그림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환경 정비의 날을 정해 도매시장 전역과 구석구석의 묵은 쓰레기를 청소하고, 식물일을 맞아 화단을 정비하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청과동 데크 앞에는 고객이 찾는 점포가 어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 청과동과 수산동 데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눈비가 올 때도 농수산물 유통이 원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공사 인접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 냉동창고 등 도매시장 활성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을 오픈해 생산자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매장 벽면에 쌓인 먼지 제거 및 새롭게 페인트를 칠하고, 전선과 에어컨 실외기를 정리하

는 등 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유통인 모두는 고객 중심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새 시장 만들기 운동 선포식을 갖고,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한 정신문화운동으로 ▶ 고객에게 친절과 정성 ▶ 불쾌한 고객행위 금지 ▶ 농수산물 정량 판매 ▶ 원산지 표시 ▶ 투명 거래 정착 ▶ 쓰레기 반드시 분리배출 ▶ 시장환경 청결 유지 ▶ 고객에게 주차장 양보 ▶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 청결한 새 시장 조성 등 10가지 사항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새 시장 노래를 출근·점심·퇴근시간과 경매 전에 방송해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배지와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도매시장 유통인이 다함께 고객 마인드 변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할어 중도매인들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 고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고객행위, 중량 속임, 실내 흡연, 원산지 속임의 4대악을 일소하기 위해 공정 거래질서 확립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자정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구리=윤덕선 기자 dsyun@khihoilbo.co.kr

# 2016

## 남인천방송 가입자와 함께하는 자선 골프 행사 2016. 5. 27 (금) SKY2 하늘코스



**NIB** 남인천방송 1544-0777 www.nibtv.co.kr

'남인천방송 자선골프행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큰 감사드립니다.

참가자들의 참가비는 전액 이웃돕기 기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 참가자** 강영길, 강태원, 구숙현, 김근영, 김대희, 김덕주, 김란용, 김범동, 김범식, 김복용, 김선숙, 김성환, 김숙자, 김연숙, 김용배, 김원용, 김은영, 김재익, 김정숙, 김조환, 김종구, 김지선, 김현태, 김형용, 김혜숙, 김희윤, 노연숙, 마경희, 문현식, 박규영, 박문선, 박복자, 박석범, 박지혜, 박진용, 박하진, 배요한, 배호영, 배효순, 백봉철, 백옥주, 백정용, 변원기, 빈동욱, 서대중, 성기숙, 신경식, 신승현, 심경희, 안경희, 안수희, 안종래, 양춘호, 오석진, 오종호, 양영진, 유만석, 유이분, 윤현수, 윤현준, 윤희원, 이경근, 이경화, 이미영, 이상현, 이선숙, 이성기, 이수임, 이숙진, 이순영, 이영운, 이영진, 이유재, 이정애, 이종근, 이종애, 이찬중, 이해구, 이형래, 이호경, 임갑진, 장정옥, 장진, 장홍식, 전운미, 정성운, 정영면, 정영수, 정태화, 조병희, 조선희, 조춘선, 주중호, 최광현, 최선례, 최선용, 최성환, 최영석, 최정애, 최정임, 최효희, 하선주, 하재영, 한경구, 허연순, 황용순, 황현정(총 107명)

지역 사랑 희망 Ch4 남인천방송 우리지역 대표방송 NIB남인천방송



### 경기농림진흥재단 그린문화 공동체 확산



쇼팽카트로 만든 정원을 손질하고 있는 농림진흥재단 봉사단.

전국 유일의 '녹색·농업부문 공공기관'인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에 따른 환경정화활동뿐 아니라 녹색문화공동체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는 '시민정원사'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며 경기도민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재단은 가평 연인산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 도내 농산물 홍보와 더해진 불우 이웃 돕기, '미니 정원' 기부 등 조용한 사회봉사로 재단 본연의 '녹색·농업' 가치에 걸맞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6차산업 활성화와 농업·정원문화 발전 등에 밑거름이 되는 데 멈추지 않고 재단의 각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 사회와 도민 체감복지 향상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있는 농림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되돌아본다.

## 농업·정원문화 발전 ~ 일자리 창출 '녹색복지' 깃발

### #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함께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

농림재단은 2010년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의 위탁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6년째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을 매년 2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다. 임직원들은 매년 날들이 많이 찾는 용추계곡 주변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한다. 지난해에도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승안리 집단시설구부터 용추버스 종점 4km 구간과 용추버스 종점 일원, 숲체관과 물안골 3km 구간까지 총 7km를 다니면서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올해 역시 여름휴가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가평 연인산을 찾는 8~9월경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재단 관계자는 "소박한 활동이지만 연인산 도립공원 내 쓰레기 수거를 통해 조금이나마 환경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재단의 사회적 책임의식도 고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마을정원 만들기·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창의적 농촌체험교육

농림재단 사회공헌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재단이 추진하는 자체 사업과 연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구체적 로드맵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다.

농림재단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군포시 산본1동의 '마을정원 만들기'를 위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도왔다. 나아가 정원학습을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총 10회에 걸쳐 정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산본1동 국민인대주택 경로당 앞 등 총 14개소(312㎡)에는 마을 주민들이 손수 가꾼 마을정원이 조성됐다.

농림재단 관계자는 "녹색공간 소외지역인 임대주택 골목 활성화를 통해 '녹색복지' 실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한부모·조손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촌마을·문화유적지 등을 연계한 창의·인성교육도 실시했다. 이른바 '창의적 농촌체험교육'으로, 지난해에는 의정부 나눔공부방 등 14개 기관 청소년들이 총 13차례에 걸쳐 농촌과 접목시킨 체험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 # 사회봉사·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은 '시민정원사'

시민정원사는 경기도와 농림재단이 2013년 전



경기농림재단 농기일손돕기 봉사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왼쪽). 감자수확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봉사단.



국 최초로 마련한 인증제도로, 정원문화 활성화와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한 녹색문화공동체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증제도다.

농림재단은 그동안 제1기 시민정원사 84명을 시작으로 389명의 시민정원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농림재단을 통해 신구대학교식물원, 한경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등에서 120시간가량의 식물 이해, 식물관리, 정원 조성 관련 교육을 수료한 뒤 수목원, 식물원, 도시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원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아파트 부녀회, 주민센터, 학교 등의 실내외 공간에서 예쁜 화단을 조성하거나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원문화와 관련한 생활형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다.

농림재단 관계자는 "최근 시민정원사가 창업을 하거나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볼 때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물론 주부, 시니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시민정원사 2기와 3기 38명이 시작했지만 올해는 1기 10명과 4기 10명이 새로 가입해 조합원이 58명으로 늘었다.

농림재단은 이들 시민정원사와 함께 '학교 숲'을 가꾸는 활동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는 시민정원사를 포함, 총 1천308명이 참여해 도내 친환경 학교 숲 조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식재 및 관수, 잔디 관리 등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 #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카트정원' 기부활동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도내 농가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농림재단 전 직원들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해 6월 감자와 양파 등 밭작물 출하 시기에 도내 농가에도 농번기 구직과 봉사활동이 크게 줄면서 농가들은 일손 부족과 노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농림재단 임직원들은 도내 감자·양파 재배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 및 집하를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당초 농림재단은 이날 직원 체육대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학교급식 납품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육대회 대신 봉사활동을 택했다. 농림재단은 앞으로도 도내 농가가 위기에 놓였을 때 이 같은 일손 돕기 봉사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와 맞물려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등 도내 9개 사회복지시설에 '쇼팽카트'로 만든 정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로비에 기부된 카트정원은 시설의 특성에 맞춰 조성했으며, 복지관 회원들 및 이웃 주민들이 '생활 속 정원문화'를 즐기는 계기가 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bo.co.kr

## 농산물 홍보 + 지역사회 공헌 지속 추진

### 인터뷰 최형근 농림재단 대표이사

농림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매년 2회 추진하는 연인산 환경정화활동이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 2010년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을 위탁관리 하면서 환경정화활동도 시작하게 됐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용추계곡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여름 행락철만 되면 불법 쓰레기가 넘쳐난다. 2010년부터 매년 2회씩 민·관·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림재단 임직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정화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도립공원 내 쓰레기 수거는 물론 호수 주변의 하천 내 발생한 부유물 집과 침적된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림재단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과정에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을 꼽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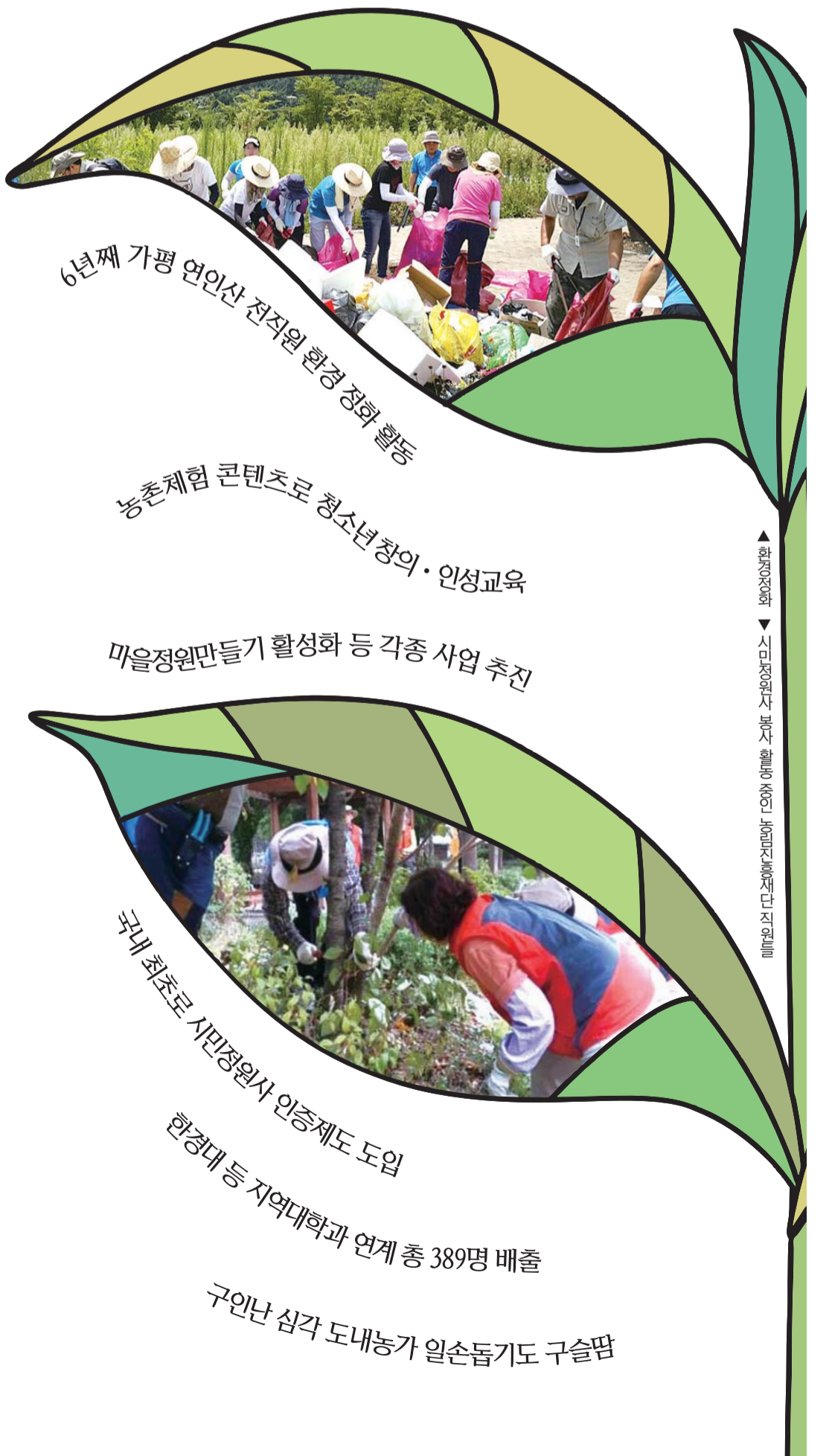
▶ 지난해 온 나라가 메르스 사태로 시름을 겪은 바 있다. 6월 감자와 양파 등 밭작물 출하가 시작됐지만 농번기 구직과 봉사활동이 크게 줄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농림재단 임직원들은 안성 등의 감자·양파 재배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과 집하를 도우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식재료로 납품되는 이들 농가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감자 재배농가 농민이 메르스로 인해 제때 수확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기쁨을 표현했는데, 그 순간이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재단은 앞으로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계획인가.

▶ 극심한 경기 침체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소중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일상적 마케팅 활동에 봉사·기부활동을 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이 각 기관이나 기업의 특성에 맞춰 다양해지고 있는데, 농림재단 임직원도 재단의 특성에 맞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불우 이웃 돕기 등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내 봉사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년째 가평 연인산 전직원 환경정화 활동

농촌체험 콘텐츠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마을정원만들기 활성화 등 각종 사업 추진

구내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도입

한경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 총 389명 배출

구인난 심각 도내농가 일손돕기도 구슬땀

▲ 환경정화 ▲ 시민정원사 봉사 활동 중 ▲ 농림진흥재단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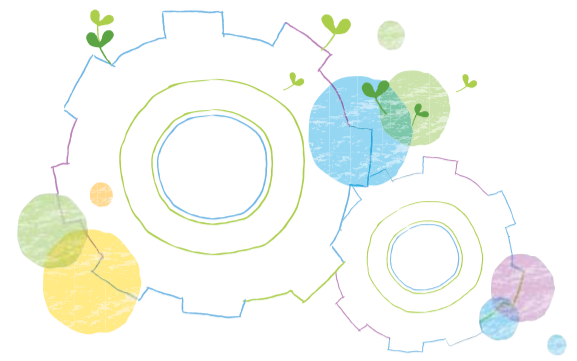
**gstep**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과학세싹키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따뜻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과학세싹키움', '사랑의 헌혈행사',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 '지역 환경정화활동', '취약계층 자원봉사' 등 모든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 아동센터 체험교육 4년간 1000명 과학 꿈나무들에 사다리 놓았죠



# 과학체험교실 4년간 1천여 명 참여  
경기과기원은 과학문과 확산사업을 활용한 '과학세싹키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과기원의 주요 사업과 연계한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처음 시작됐으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청소년의 '과학꿈'을 키워 주기 위한 과기원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활동 첫해인 2012년부터 지금까지 평택지역아동센터, 햇빛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웃음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과학

산학연지원본부는 사회복지법인 '좋은집'(안양시 소재 보육시설)을 찾아 놀이터 정리, 정돈 및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바이오센터 50여 명의 임직원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 김치 1천 포기를 담가 후원금과 함께 불우 이웃에게 전달했다.

경기도로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위탁관리받아 운영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는 2014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주민센터와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육교 환경정비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역 맞춤형 '1사(社)1교(橋)' 협약을 맺고 육교에 꽃을 식재하는 등 주변 환경정비활동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도내 청소년 과학문화 확산 30곳 아동센터 교육 지원  
직원들 헌혈운동 정기 동참 4년 만에 377명 증서 기부  
1사1교 환경 정비·신생아 모자뜨기 등 릴레이 봉사중

# 사랑애향 헌혈 약정 등 나눔 실천 전방위로

경기과기원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애향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440명이 참여해 377명의 헌혈증서를 기부, 혈액이 필요한 지역 이웃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전달했다.



1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도내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과학체험교실을 운영 중이다. 2 홀트작업장을 찾아 정기적 봉사활동 펼치고 있는 직원들. 3 바이오센터 연구원들이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에 동참하고 있다.

체험교육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 모형 진공청소기 만들기 ▶ 풍향·풍속계 만들기 ▶ 공중부양 팽이 만들기 ▶ 빛 합성기 만들기 ▶ 풍력자동차 만들기 등 다채로운 과학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과기원은 현재까지 3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도내 1천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교육을 펼치며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한 교육 지원을 아끼아 않고 있다.

본부별 임직원이 매년 참여하는 테마형 릴레이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릴레이 봉사활동은 본부별 팀워크 향상 및 임직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경기과기원은 측은 설명했다. 홀트보호작업장 봉사, 장애인복지시설 배식활동, 홀몸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자원봉사, 지역 환경정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

#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

정책연구본부 전 임직원은 고양시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인 홀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장애인들과 함께 쇼핑백에 끈을 묶는 작업과 봉투를 접어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경기과기원은 2014년 경기혈액원과 정기적 헌혈운동으로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자 헌혈 약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임직원 자원봉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바이오센터 연구원들이 주축으로 함께하는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는 2013년 12월 임직원 간 여가 및 취미생활의 상호 교류를 위해 지정된 '문화의 날'에 바이오센터에서 처음 시작됐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2007년부터 진행해온 캠페인으로 신생아들을 위해 모자를 직접 떠서 아프리카·아시아 등 체온 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28일 미만의 신생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랑 나눔 캠페인이다.

바이오센터 연구원들은 세 달간 점심시간, 개인시간 등 짬짬이 시간을 내 신생아 모자 30개를 손뜨개로 만들어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매년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을 진행, 연구원들이 정성껏 만든 털모자를 기부하며 아프리카의 소중한 어린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 인터뷰 **곽재원** 경기과기원장

###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공공기관 사회책임 모범



"올해 개원 6주년이며, 경기도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과기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원장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며 "임직원들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경기도내 산하기관으로서의 기본임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연구와 도내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 네 가지 세부 사업 부문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듯이, 앞으로 과기원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장기적 안목으로 각 본부의 역량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조화들을 고려해 기획 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본부·센터에서 추진 중인 '과학세싹키움', '사랑의 헌혈행사' 등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곽 원장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 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과학기술 전담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로드맵

#### 1단계 (~2015년)

- ◎ 전략적 사회공헌 체계 수립
- ◎ 부서별 전담자 지정, 봉사단 브랜드화
- ◎ 사회공헌활동 피드백
- ◎ 사회공헌 마케팅활동 강화

#### 2단계 (~2017년)

- ◎ 타 공공기관·단체와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 운용
- ◎ 사회적 약자 계층과 함께하는 전사적 테마 프로그램 개발
- ◎ 지역사회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 3단계 (2020년~)

- ◎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기업문화 정착
- ◎ 나눔문화 실천의 1등 공기업 달성

## 임직원 “지역과 더불어” 앞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협약식 2016. 4. 2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2015년 '아름다운 기부 행사' 의류, 도서 등 1,560점(230만원 상당) 전달식 2015. 12. 1(수)

## 1인 1회 이상 땀흘리기 실천 중

통합 출범 2년 6개월을 맞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눔 상생경영을 통한 대도약에 나섰다. 고용 차별화를 탈피한 인사 개선 시스템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기업 최고의 지향점인 흑자 전환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내 도시개발공사 중 최단기간이라는 점에서도 값진 성과다. 여기에 성남시가 시행 중인 약성 채무 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에도 전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 올바른 금융의식과 선진국형 기부문화 선도 등 모범 공기업으로서 윤리적 가치도 제고하고 있다. 고객존중, 창의경영, 효율증진, 봉사행정을 중심으로 사람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유 있는 도약을 들여다봤다.

# 자발적 나눔 실천 봉사단 '봉우리' 창단을 통해 전 직원 사회공헌활동 봉사하는 우리라는 의미인 봉우리(단장 황호형)는 사회적 책임에 따른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14년 창단 후 사랑의 헌혈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다·해드림 하우스 사업), 자매결연 지역(전남 신안, 경북 상주) 일손 돕기 등은 봉우리 봉사단의 대표 상생봉사다. 자신의 깨끗한 피와 건강한 육체,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는 봉사라 하겠다. 한 끼 밥값만 있으면 누구든 가능해 때로는 봉사자를 선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매년 봉사자 수로 따지면 전 직원(780여 명)을 넘어 900여 명에 달한다. 모든 임직원이 1개 이상의 나눔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직원들은 각자 140여 개의 봉사활동을 펼쳤고, 이를 시간으로 따지면 7천500여 시간에 이른다.

기부봉사도 줄을 잇는다. 틈틈이 모은 신용카드 포인트와 희망의 선물 동전 모으기, 소년소녀가장·저소득·홀몸노인 경제 후원 및 장학금 지원 등에 임직원들은 매년 2천여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임원 등 취임식에서의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받는 기부문화는 정착된 지 이미 오래다.

이 밖에도 바자회 등을 통한 아름다운 가게(여성의 심장 등) 중고 물품 기부도 매년 1천500여 점에 달한다.

전 직원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우리 사회의 이웃은 물론 농어촌 지역까지 상생의 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천선(수정도서관 소속)팀장은 “지난해 상주시 갑 따기 봉사에 참여했다 일이 힘들어 고생했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민들과 나눴던 따뜻한 정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됐던 계기”라고 말했다.

#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청년을 배려하는 상생시스템

출범 후 공사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기준(NCS) 도입과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CS 삼진아웃제 도입 등은 인사관리 신뢰도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 ‘모든 정책은 일자리 중심’이라는 정부 패러다임에 발맞춰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별도 수립, 지난해 91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을 8명 고용했고,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실버인력 11명을 별도로 채용했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라는 의무에 청년인력도 43명을 고용했다. 이는 채용인원 대비(91명) 47.3%로 전년(청년고용 15명)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는 장애인 근로자 51명(현원 대비 6.54%)이 채용됐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비율도 공공기관 법적 의무 고용률 3%를 훨씬 상회한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로 일컫는 고객서비스 분야에 경증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방 공기업들 각각의 특성상 청년 정원이나 장애인 근로자 등을 채우지 않고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사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장애인 채용으로 고용 창출에 힘을 보탬 방침이다.

청년인턴 임현지(탄천종합운동장 소속)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기업들에 지원서를 내 봤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약정을 체결했다.

### 일손돕기부터 매년 2000여 만원 기부까지 사내 봉사단 봉우리 주축 나눔 기틀 마련 장애인·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적극 고용 통합출범 2년여 만에 흑자전환 시너지로

번번이 탈락하다 공사의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됐다”며 “인턴이지만 청년실업률이 높은 시기에서의 공기업 업무 경험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윤리적 빛 탕감운동 ‘롤링주빌리’ in 성남 프로젝트 지속 참여

2014년 (세희광살림과 연계한 성남시 부실채권 소각 릴레이에 시 산하기관 최초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출범 당시 임직원 692명이 모금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총 1천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전 직원(778명)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중 216명의 임직원은 3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매월 자동이체로 약정까지 한 상태다.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인들의 탐욕에 반발한 월스트리트 시위 주도자들이 2012년 11월부터 벌이고 있는 빚 탕감 시민운동이다. 늘어만 가는 저신용자의 신용 회복을 통한 가계경제 활성화 지원이 목적이다.

금융시장에서 부실채권이 통상 원금의 1~10% 내외의 할값에 거래된다는 점에 착안, 시민들의 성금으로 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한다. 보통 5년 이

상 된 장기 부실채권이 대상이다. 이에 공사는 2014년 9월부터 범사회 연대를 통한 모금운동으로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성남시의 롤링주빌리 빛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통합 출범 2년 6개월 만에 경영환경 개선으로 대도약

성남시설관리공단을 흡수 합병한 통합 공사가 출범 2년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기도내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최단 시일 내에 이룬 성과다.

출범 첫째 매출액 511억 원에 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듬해 매출액 626억 원에 영업이익 4억4천만 원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 8억 원을 달성했다. 지역사회를 향한 임직원들의 헌신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출효과가 맞물려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실로 지난해 공사는 경영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지방공기업학회)과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여성가족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우수 근로장학기관 선정(교육부), 무재해 5배수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일궈냈다.

공사는 올해 뚜렷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사업수지 3.5% 이상 개선과 고객만족도, 사회공헌활동, 청렴도 등을 향상시켜 ‘시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의 2020 비전을 수립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당과 판교 IT테크노밸리를 연계한 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인 백현지구 도시개발과 성호공설시장 건립 대행, 서현지구 등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호형 대표이사는 “그 무엇보다 성남시민에게 공공 이익을 환원하는 공적 책무를 달성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임직원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연결고리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될 때 지속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과 사람을 통한 헌신적 재분배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지역 가치를 창출해 내고, 이로 인한 성공적인 개발 모델 완성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명실상부한 1등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봉우리봉사단을 중심으로 꾸준한 봉사를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 단천면 하천정화활동.
- 재능나눔을 위한 성남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 직원들의 아름다운기부행사.



▲ 저소득층 가정·지역아동센터 등에 국산 목재로 만든 책걸상을 기증하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 5월 열린 여주 임산물종합정보센터 개관식서 테이블 커팅을 하고 있다.  
▶ 노인회·경로당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찬치를 열고 있다.



# 숲의 사랑 품은 책상 위로... 아이들 푸른 꿈이 쑥쑥

##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활용한 나눔사업

전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국산 목재 책걸상을 꾸준히 기증해 오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여주시에 임산물유통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를 개관했다. 청정 임산물의 새로운 소비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산림분야 6차산업 촉진을 위한 센터는 2년여 사업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7일 문을 열었다.

센터의 상인인 세계 최대 크기의 '세종대마' 목마 조형물과 숲 체험관, 숲 치유놀이관, 임산물 전문 음식체험관(산해진미), 숲 카페, 임산물 정보관, 임산물 전시판매장, 기획·전시홍보관, 임산물 저장·가공시설로 구성돼 있다. 전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국산 목재 책걸상을 꾸준히 기증해 오고 있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숲선수범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한다.



'산림의 모든 것' 여주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 트로이 목마 닮은 상징 '시선집중' 힐링놀이터·요리교실 보러오세요

### # 전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국산 목재 책걸상 기증

산림조합중앙회는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 한울지역아동센터, 여주 선우학교 등 전국 47개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시설 외에 소외계층 334가정에 국산 목재로 만든 학생용 책상·의자 840조와 좌탁 111개 등 2002년부터 지금까지 16억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를 기증했다.

### 14년간 국산 목재로 의자·좌탁 제작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16억 상당 기부 애국지사 묘역 별초·장학사업 꾸준

### 채용·직원포상 때 다자녀 가정 우대 출산장려·양육 지원 공기업 중 최대

이 물품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산림조합에서 제작했으며,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추천받았으며,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가정 등에 우선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약하나마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데 힘이 되고 있다.

### # 지난해 전국 240여 가정과 시설·단체에 재능기부 및 현물 후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림조합은 지난해 우리 사회 곳곳의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재능기부를 비롯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후원,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국민과 함께 했다.

전국 회원 산림조합과 함께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는 조합의 특성을 살린 애국지사 묘역 수목 정화 및 별초, 도움이 필요한 시설과 가정의 청소와 빨래, 따

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용 목재 땔감과 목재 펠릿 등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산림조합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사 1다자녀 가정 후원, 불우 이웃 돕기성금 모금,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 재활용 가능한 의류를 수집(6천여 점)해 전달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240여 가정과 시설 및 단체)에 온정을 전달했다.

### # 산림조합, 숲을 키우듯 다자녀가정 지원

산림조합은 다자녀가정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출산의 고귀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산림조합과 함께 1사 1다자녀 가정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자녀가정 지원 활동은 다자녀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2016년 2월 출생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환기를 위해 산림조합이 앞장서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은 신규 직원 채용에 다자녀가정 지원자 5% 가산점 부여, 임신부 및 육아를 위한 탄력근로제 시행,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7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 직원 포상 등 민간 및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석형 중앙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져 '멸종위기 1호는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푸른 숲을 가꾸었다가 다자녀로 이어지는 데 산림조합이 앞장서겠다"며 "할 평군수 재식 시절부터 다동이 가정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합평균 8남매 다자녀가정의 흥가운(현 17세)양과 2011년 결연을 맺고 친부녀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은 숲과 나무를 키우듯 저출산사회를 극복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와 산림조합중앙회 간 1사 1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전국 산림조합의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위한 육아·생활용품 지원, 아이와의 대화, 함께 놀아주기 등의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5월 여주에 문을 연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는 산림의 변천 과정, 산림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임산물 정보는 물론 임산물의 모든 것을 모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임산물 저장·가공시설은 임산물의 가공 과정을 보여주는 시각적 홍보와 시설 내 소요되는 임산물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단기 임산물의 간편식 개발과 보급(대추채 등)에 가공시설 도입, 임산물 전문음식 체험관 메뉴와 연계해 향후 간편 가정식(Home Meal Replacement) 상품의 개발 및 전처리 시설이다.

### 어린이 산림치유 프로 운영 일품메뉴·간편식 보급 촉진 아웃렛 등 방문객 연계 기대

저장시설은 국내 임산물 유통시장 변동 요인과 연계한 원물 수급 및 판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가공시설은 GAP 및 HACCP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요소를 전면 차단했다.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숲체험관·임산물 전시판매장은 산림의 대중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우리 임산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융·복합 마케팅을 통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체험관은 건물 내부에 대형 수목 식재를 통한 숲 조성으로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버섯 등 산림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산물을 이용한 음료 및 한방차류 제품 등 숲과 사람의 조화를 통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임산물 전시판매장은 방문객들을 위해 계절별·지역별 특산 임산물 전시·판매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객 편의를 위한 동선을 구현하고 매대는 산림조합 이미지에 걸맞게 국산 목재를 사용했다.

산림치유놀이관에는 임산물의 이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 등을 체험하고 자연스러운 놀이 문화로 승화해 전자입업 미래 성장을 위한 잠재



▲▲ 요리교실이 열리는 임산물 전문음식 체험관.  
▲ 원경호(오른쪽) 여주시장이 시 관계자들과 함께 임산물 전시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객인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한다.

종합정보관에는 센터의 명물 트로이목마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여주 아웃렛과 영동고속도로 이용객을 위한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데 앞으로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물 전문음식 체험관에서는 우리 임산물의 다양한 요리법을 실현해 섭취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는 2014년 먹거리 임산물 외식사업 모델 개발 용역을 통해 참고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전율이 빠른 경쟁력 있는 일품 메뉴를 도입, 국산 청정 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기여하고 있다. 음식체험관 일부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임산물 소비 촉진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임산물 요리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박신양 파워’ 조들호 안방극장 화려한 퇴장

마지막회 전국 시청률 17.3% 기록 KBS 월화극 부진 탈출 결정적 한방 후속작 ‘백희가 돌아왔다’ 6일 방송

‘일개’ 동네변호사가 서슬 퍼런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변호사 조들호의 영웅적 활약을 그린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5월 31일 막을 내렸다. 조들호 역의 박신양이 보여

준 ‘원랜쇼’는 마지막 회에서 17.3%(닐스 코리아·전국 기준)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로 보답받았다.

▶안방극장 휘어잡은 박신양...KBS 월화극 부진 탈출= 박신양은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연기를 보여 줬다. 그 덕분에 1년 넘게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KBS 월화극은 부진의 늪에서 탈출했다. 드라마는 장장한 출연진을 내세운 SBS TV 사극 ‘대박’도 곧 따라잡고 지상파 월화극 1위로 올라섰다.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한 장면.

▶맨주먹 변호사의 활약에 대리만족= 드라마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악을 무너뜨린’ 조들호의 활약으로 동쾌함을 선사했다. 드라마는 사법권력과 정치, 경제권력의 유착을 고발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에 에 둘러 꼬집었다. 거약 혁절을 부르짖던 검사 자신이 거약이 되는 모습은 최근 불거진 일련의 법조 비리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김갑수 열연도 호평...애청자, 시즌2 기대

제작 요구도=드라마 한계도 뚜렷했다. 조들호가 부정의에 대항하고, 악의 세력이 이를 짓밟고, 조들호가 예상치 못한 카드로 ‘울릉도 호박엿을 먹이는’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유 기성은 떨어졌다.

무계중심이 박신양에게 현격히 기울면서 여주인공 이은조 변호사 역의 강소라는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권력유에 눈먼 검사장 신영일로 등장한 김갑수의 연기가 더 돋보였다.

드라마 시청률이 15%를 뛰어넘으면서 4회 연장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박신양이 영화 촬영 일정을 이유로 고사하면서 무산됐다. 애청자들 사이에서는 시즌2 제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네변호사’가 떠난 자리에는 강예원 주연의 4부작 ‘백희가 돌아왔다’가 6일부터 방송된다.

배우 한혜진 육아에는 MC로 컴백

SBS ‘애미룩’서 신동엽과 호흡

축구선수 기성용과 결혼한 뒤 방송을 떠났던 배우 한혜진이 3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이달 말 방송되는 SBS TV 파일럿(시범제작) 육아 예능 프로그램 ‘애미(愛美)룩’을 통해서다.

이 프로그램의 홍보사덕터독은 1일 ‘신동엽과 한혜진이 이달 말 방송되는 SBS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다시 쓰는 육아일기-애미룩’의 MC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혜진은 2013년 기성용과 결혼한 뒤 ‘힐링캠프’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해 딸을 낳았다.



한혜진

신동엽

제작진은 ‘신동엽과 한혜진은 연예계에서 입담과 진행에 있어서는 놓을 수 없는 대표 MC’라며 ‘애리하고 날카롭게 출연자들의 마음을 읽으면서도 편안한 진행으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텔레비전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KBS I, KBS2, MBC, SBS, OBS, EBS) and their respective TV programs.

종합편성채널·케이블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JTBC, TV조선, 채널A, Mnet, 코미디TV, tvN, tvN) and their respective TV programs.

오늘의 운세 (Daily Fortune) section featuring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e.g., 36년생, 37년생, 38년생, etc.).

CosmosHuanbo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systems, featuring images of solar panels and a house. Includes text about solar energy technology and contact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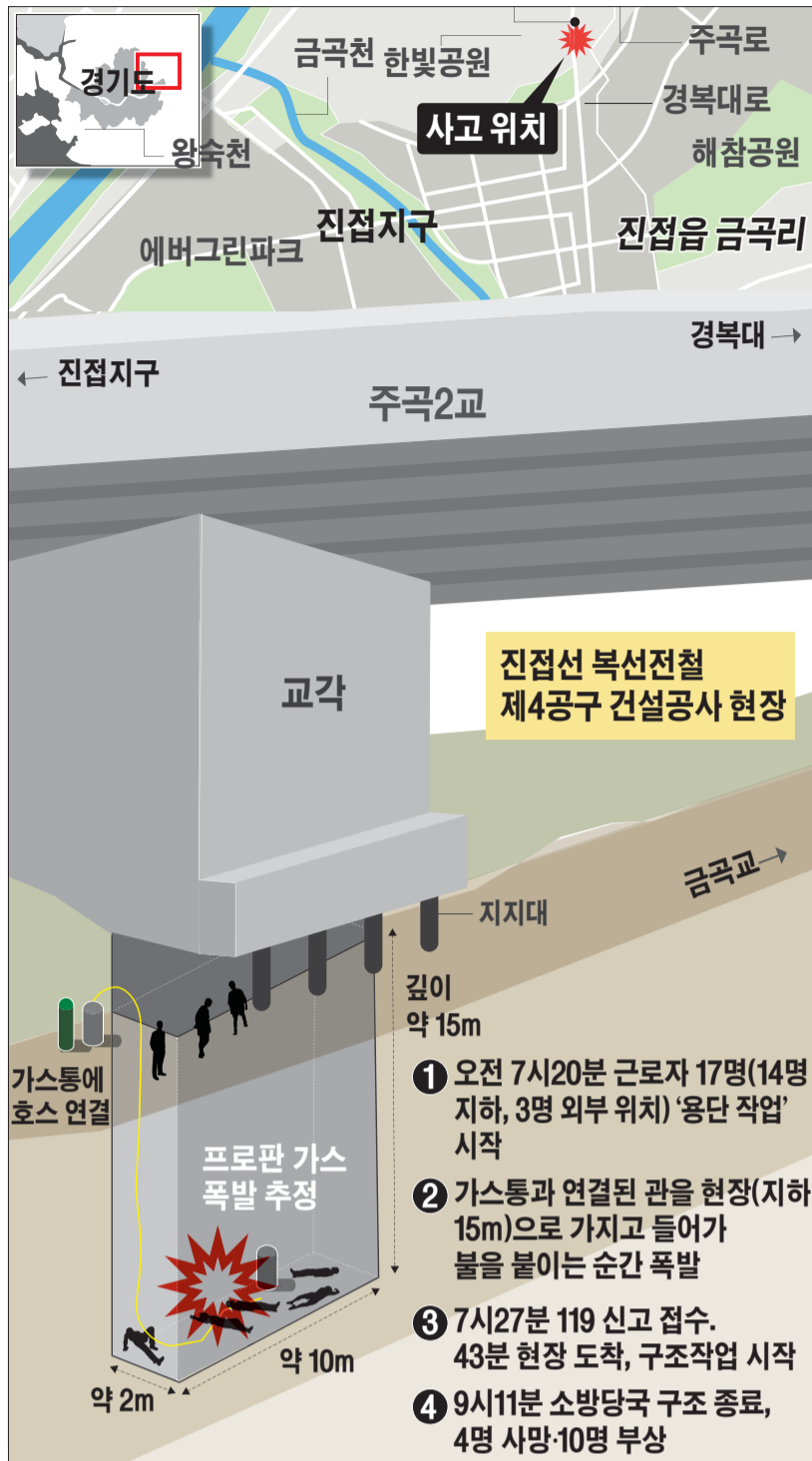








남양주 붕괴사고 시간대별 상황



# 지하 15m서 튀어나온 철근 절단하려다 '핑'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구간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폭발에 의한 사고로 보고 공사관계자들을 불러 공사현장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4호선 연장구간 진접선 4공구 현장... LPG통·산소연결 호스 들고 투입 참변 부상 10명 중 3명 화상 심각 위독... 교량붕괴 위험 우려 안전 점검 특별 지시



## 구덩이에 차 있던 가스 터진 듯

▶ 사고 재구성=1일 오전 7시께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 시공사인 매일 ENC 소속인 근로자 서모(52)씨 등 12명이 집합했다. 이들은 이날 지하 15m 깊이에 위치한 작업 현장에서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려던 중 튀어나온 철근이 있어 이를 절단하는 등 용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근로자들은 지상에서 약 20분간 장비 점검과 안전체조, 작업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뒤 LGP통 및 산소통과 연결

된 고무호스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30분도 안 돼 지하에서 주변을 뒤쫓는 폭발음이 났다. 인근 1km까지 소리가 크게 나면서 119 소방당국엔 깜짝 놀란 시민들의 신고 수십 통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폭발 충격으로 외부로 튀겨져 나온 사망자 1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지하 15m 아래에 매몰된 3명의 시신을 모두 인양했다. 사망자들은 남양주 한양병원·현대병원 등 2곳으로 옮겨졌다. 인근 구리 한양대병원과 남양주 백병원 등 4개 병원에는 부상자 10명이 옮겨졌다. 이 중 3명은 화상이 심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 내 제 4공구다. 남양주 오남역~진접역 약 2.49km 구간을 연결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공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총 1천756억 원이 투입되며, 2014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약 15%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하청업체인 매일 ENC 소속으로 철근공과 작업보조인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상부에는 금곡리 금곡2교 교량이 설치돼 있다. 왕복 5차로 도로가 지나가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인해 교량 붕괴 위험이 우려되자 안전점검을 특별 지시했다.

▶ 사고 원인=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남양주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 60명을 배치했다. 수사본부는 가스통 밸브가 미리 열렸거나 가스관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 이미 구덩이에 차 있던 가스가 터진 것 등 3가지 가능성을 보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작업자들은 지상의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구덩이 15m 아래로 내려 용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불꽃을 내기 위해 호스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당시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시공사인 매일 ENC 측의 현장안전 관리책임자는 지상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수사본부는 폭발 규모로 미뤄 며칠 전부터 계속 용단 작업을 한 만큼 호스에 불을 붙이는 순간 구덩이에 차 있던 프로판(LPG)가스가 터진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상자가 위독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1일 남양주시 진접을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양주=홍승남 기자 nam1432@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2 | 달뜨기 03:05  
6월 2일(목) | 해질 19:48 | 달짐 16:22

고양	13/30	양주	13/29	가평	15/27
김포	16/28	서울	18/29	의정부	14/30
인천	17/26	수원	16/30	남양주	14/30
				양평	15/31
				이천	14/31

## 피곤한 몸 이끌고 "현장일 바쁘다"며 출근했는데...

### 곳곳서 오열... 비통한 민소

"사람이 죽었는데 적어도 그 이유는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온하던 6월의 첫날 아침, 갑작스러운 폭발사고로 순식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희망을 감추지 못했다. 1일 오후 3시 30분께 이날 폭발 사고로 숨진 작업자 3명이 안치된 남양

주 한양병원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유가족들은 고인의 빈소조차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 응급의료센터 보호자대기실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물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회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연락이 아닌 뉴스 또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인에게서 사고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회사, 경찰과 소방, 시청 등 관련 기관 어느 곳에서도 사고 경위조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사고 상황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원래 우리가 직접 신원을 알아보고 언론을 통해서만 사고 소식

을 접해야 하는 것이냐"며 "빨리 신원을 확인하고 어떻게 사망했는지 직접 설명을 듣고 싶을 뿐인데 회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망자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다. 동생의 전화를 통해 사고 소식을 알게 됐다는 고(故) 윤모(62)씨의 아내 김모(61)씨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남편이 너무 피곤해하며 오늘은 쉬고 싶어했지만 현장일이 바쁘다며 결국 출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성격이 좋아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오열했다. 실제 숨진 윤 씨는 포천의 고속도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2주일 전에서야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으로 옮겨왔다. 김 씨와 함께 병원을 찾은 30대의 두 딸과 세 살배기 손자는 "불과 지난 주에 새 차를 장만했는데 4일밖에 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워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손자는 슬픈 광경에 울음을 터뜨려 주변을 숙연케 했다.

<특별취재반>

**불볕더위 기승**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음.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 분포.

바다날씨 (오전)			강수확률 (%)			
시해	서~북서	4~8	0.5~0.5	지역	오전	오후
남해	북동~동	6~11	0.5~1.5	인천	0	0
동해	북동~동	4~7	0.5~1.0	수원	0	0
				동두천	0	0
				이천	0	0
				양평	0	0
				강화	0	0

제공 Kweather www.630.co.kr

유람선, 도선 탑승시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 (시행일 2016. 1. 25.)

# 신·시·모도 장봉도 여행시 신분증 꼭 지참

탑승객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5조)

**주민등록증**  
해 우리  
XXXXXX-XXXXXXX  
OOO서 □□□구 △△△동  
2016. 1. 25  
□□□ 구청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학생증, 청소년증, 건강보험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확인 증명서
- 단, 미취학아동(유아)은 동반한 보호자(부모, 친족, 교사 등)의 신분확인으로 갈음

**5 세중해운(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847번길 55 문의전화 ☎032)751-2211

# 인천 남동구청장 ‘불통’에 지역 업체들 ‘죽을 맛’

### 캠핑장 등록 거부하고 임시주차장 폐쇄 청소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 잇단 잡음 구청장 측 “적법한 절차로 추진” 해명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의 ‘불통행정’에 지역 업체들이 바람 잘 날 없다. 인천대공원 캠핑장 위탁업체는 지난해 등록을 안 해 주더니 올해는 주차장을 폐쇄<본보 6월 1일자 19면 보도>시켜 2년째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소 대행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로 어려움을 겪는데다 최근 늘어난 과태료 부과에, 일부 업체는 경찰 수사까지 받는 실정이다.

1일 남동구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은 지난해 구에서 야영장업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행정·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았다. 법률 자문료로 1천500여만 원을 지불했고, 항고 등 비용은 조만간 추가로 내야 한다.

2013년 문을 연 캠핑장은 초기 투자금이 6억 원 남짓 들어갔으며, 지난해 야영장업 등록 거부 사태로 3억 원가량의 영업손해를 본 것으로 캠핑장 측은 내다봤다. 이때문인지 지난해 5천여만 원의 임대료가 밀렸었다.

캠핑장 측은 지난해 30일부터 구에서 주차장을 폐쇄해 본격 캠핑철을 맞은 올해도 수익 연대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캠핑장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폐쇄는 지난해 각종 송사에 휘말리게 만든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며 “솔직히 손해배상 청구 등 장 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시에서 부탁해 소송을 걸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보복은 지역 업체 죽이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남동구 5개 권역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들도 죽을 맛인 건 마찬가지다. 기준보다 낮은 단가에 계약해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데다, 장 구청장이 추진해 선발한 공모직 직원(무기계약직)들의 재활용쓰레기 처리 업무까지 떠맡았다.

장 구청장은 올해부터 각 동 주민센터로 이관된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원활히 하겠다며 61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한 바 있다. 결국 A업체는 지난해 계약을 포기했다. B업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계약상 위반에 관한 사항’이라며 구청에 800만 원의 과태료가 지 물어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구는 청소 대행료를 줄이겠다며 공개입찰로 단가를 후려치더니 이 권역의 새 업체 계약은 다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입찰이 안 들어와서다. 기존 업체가 약 78%에서 낙찰된 것과 달리 이 업체는 99% 수준에서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나머지 4개 업체는 구에 87% 수준으로라도 올려줄 것을 요청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중재위원회가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장 구청장 측은 비서실을 통해 “캠핑장은 2008년께 썸베리 하기 전에는 매달도 심고 했던 곳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원상 복구하라고 한 것뿐이지 보복행정은 아니고, 청소업체가 직원 월급을 적게 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청소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ohoilbo.co.kr

## 검찰, 한국지엠 본사 압수수색... 상무 1명 체포

한국지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본보 5월 11일자 19면 보도>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일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배임수해 혐의로 한국지엠노무관리팀 소속 A(57)상무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인사·구매·회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A상무가 노조 간부들과 짜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 주는 명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상무와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전 지부장 B(55)씨와 전 지부 간부 C(51)씨 등 노조 전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

다. B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상무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전 지부장 D(51)씨와 물품업체 대표 1명도 배임증제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D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후임으로 지부장이 된 B씨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한국지엠 전직 노조간부들의 배임행위 혐의로 인천검찰이 한국지엠 인천본사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1일, 검찰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돌연 사퇴한 노사부문 부사장이 노조 비리와 관련, 책임지고 물러난 것이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간부 1명을 체포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부문 부사장

은 건강이 좋지 않아 퇴임했는데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와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국내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lbo.co.kr

## 준공 1년도 안된 도로가 물 고이고 균열 ‘찍’

인천시 중구가 주민의 편리를 위해 개설한 지방도로가 마구잡이식 공사로 되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영종미개발지역 소2-5호선(중산동 돌곶재 일원) 도로와 관련해 올 1월 29일 중산동 1165의 1번지 발(전체 3천300㎡) 소유주 최모(59)씨가 구를 대상으로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소송을 냈다.

영종미개발지역 소2-5호선 도로는 총 사업비 82억 원이 투입돼 총길이 2천264m, 폭 6~11.5m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

됐고, 김홍섭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최씨는 2013년 7월 도로 개설 설계 당시 자신의 발 일부(1천320㎡)를 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담당 공무원이 나머지 발 일부로 빗물 등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배수관을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배수관을 설치한 바람에 빗물이 발로 유입하게 됐다며 배수관을 제거해 달라 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구에 빗물 등이 발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배수관에 흙을 덮어 보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결정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구는 내부 논의를 통해 보수공사비 700만 원을 들여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근 주민들이 도로 부실공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불만을 쏟아내

고 있다.

도로 구간 곳곳의 가로등은 보도블록과 2cm가량의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바닥면을 불규칙적으로 포장한 탓에 물이 고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인 도로가 주민 불편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주민 김모(57)씨는 “도로 개설 전 배수관 설치 방향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준공 시기를 맞추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밀어붙여 엉망진창 도로가 돼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배수관은 기존 물길을 살려 설치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은 수용할 계획이며, 도로와 관련된 민원 등은 현장을 확인한 뒤 보수공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인천기자 hun@kohoilbo.co.kr

## 중구 영종미개발지역 일부 도로 부실공사 민원 쏟아져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소송도... 공기 맞추려다 ‘누더기’

## 새기 노린 간석파 폭력배들 8명 구속·61명 불구속 입건

핵심 조직원들이 빠진 인천 최대 폭력조직 ‘간석파’를 재건하려던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와해된 폭력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조직원을 모은 전 간석파 행동대장 김모(32)씨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 구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허모(25)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건태 기자 jus216@kohoilbo.co.kr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 21세기 지방언론을 이끌어 나갈...

최고가 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래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경인지역의 아침을 여는 신문 기호일보의 지령 8000호를 축하드리며  
우리들도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값진 땀방울을 흘릴 것입니다.

(주)에스에이이앤씨  
회장 강전국

